

게 한데 모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해동안 지켜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2021년에도 우리를 지키셔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가족 모두가 이렇게 추석을 맞아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굳게 하되, 무엇보다 올 한해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모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 송 310장(통합찬송가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다 같이**

가족과함께드리는 추석가정예배 순서지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다 같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 송 588장(통합찬송가307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 같이

- 1 공중 나를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고 안해도 솔로몬의 입은 웃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 도 가족 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우리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우리 가족이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격려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봉독 레위기 23장 39-43절 인도자

- 39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넷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 40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 41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 42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 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 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인도자

‘추석’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교통 체증을 뚫고 온가족이 한데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만나 담소도 나누는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원래 추석은 한해동안 농사 지어 추수한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기쁨도 나누면서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한해에 가장 인심이 풍성해지는 명절이기에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지요. 이렇듯 추석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쁨을 나누는 명절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토지 소산을 거둔 후에는 일주일 동안 여호와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의 이름은 초막절이며, 이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통해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함께 즐거워하십시오(40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해동안 농사지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즐거워하는 축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석은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한 상에 둘러 앉아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추석이면 고속도로가 정체될 정도로 우리 민족은 정이 많고 가족애가 남다른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런 미풍양속을 잘 계승하되, 무엇보다 한해동안 각자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감사를 고백하십시오(42절). “너희는 이레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레 동안 자기 집이 아닌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한해에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일주일동안 초막에서 거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떠올리고 잊지 않게 하며, 우리가 이렇